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Economytalk News

HOME 문화라이프 전시·영화 자동전송제외

백 없이 작품성으로 베니스비엔날레 참여하는 김완·심향·손파 작가 눈길

왕진오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승인 2017.04.12 10:29

[이코노미톡뉴스=왕진오 기자] 세계 각국의 주목받는 작가를 선정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연령대를 지닌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시간, 공간, 그리고 존재에 대한 성찰을 시도하는 2017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에 대구 경북 출신 김완, 심향, 손파 작가 참여한다.



▲ (왼쪽부터)2017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에 참가하는 김완, 심향, 손파 작가. (사진=왕진오 기자)

김완 작가는 골판지를 커터칼로 잘라내는 작업으로 상처의 치유 과정을 작업으로 풀어낸다. 심향 작가는 한지에 실로 관계와 소통에 대한 독특한 작업으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손파 작가는 한방 치료에 사용되는 침을 사용해 입체 설치 작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네덜란드 비영리재단인 글로벌아트페어재단(GAAF)과 유럽피안컬처센터(European Cultural Centre) 주최로 5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열리는 제57회 베니스비엔날레의 특별전 '퍼스널 스트럭처(Personal Structure)'는 베니스의 명소인 리알토 다리 근처에 위치한 팔라조 벰보(Palazzo Bembo)와 팔라조 모라(Palazzo Mora) 두 곳에서 열린다.

베니스비엔날레 국가관과 별도로 마련되는 특별전에 초대받은 한국작가로는 2009년 김아타, 2011년 이우환, 세오, 2015년 남홍, 차수진, 한호, 이명일, 이이남, 박기웅이 있다.

또한, 아르놀프 라이너, 로렌스 와이너,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 아니쉬 카푸어 등 현대미술 거장들과 함께 나란히 작품을 전시해 세계적인 주목은 물론 국제적인 작가로 활동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특별전은 주최측이 직접 초청작품을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최 측은 전시주제와 적합한 작품을 까다롭게 평가해 선정했다.

2017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에 참가하는 이들 전시를 함께 꾸린 갤러리 팔조 측은 "짧지 않은 시간을 곳곳이 자기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하며 제 길을 걸어온 김완, 심향, 손파 작가를 세계미술계에서 먼저 알아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진오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wangpd@economytalk.kr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